

## 동국 대학교 불교 대학 ( 한국 ) 과 동양 대학 국제 철학 연구 센터 ( 일본 ) 의 공동 연구 보고 ( 제 2 회부터 제 4 회 )

사토 아쓰시 ( 佐藤 厚 )  
번역 : 정상교

본고는 동국 대학교 불교 대학 ( 한국 ) 과 동양 대학 국제 철학 연구 센터 ( 일본 ) 와의 공동 연구 제 2 회 부터 제 4 회까지의 공동 연구에 대한 보고이다. 이것은 2014 년 5 월에 체결된 공동 연구 협정에 기반한 것이며, 테마는 [ 근대에 있어 한일 양국 불교의 변천 ] 이다.

### · 제 2 회 연구회

2015 년 3 월 19 일 동양 대학 백산 캠퍼스 8 호관 7 층 125 기념홀에서 제 2 회 연구회가 개최 되었다. 사회는 이와이 쇼고 ( 岩井昌悟 , IRCP 연구원 / 동양 대학 ) 가 맡고, 정상교 ( 동경 대학 대학원 ) 가 통역을 담당하였다. 개회식에서는 다케무라 마키오 ( 竹村牧男 , IRCP 연구원 / 동양 대학 학장 ) 와 강문선 ( 혜원스님 , 동국 대학교 교수 ) 이 개회 인사를 하였다.

이어서 연구 발표가 시작되었고 최초 발표는 사토 아쓰시 ( 佐藤厚 , IRCP 객원연구원 / 전수대학 특임 교수 ) 의 「1917 년, 조선불교계 수뇌의 일본 시찰 - 일본측의 대응을 중심으로 -」 였다. 이것은 일본 식민지 시대에 한국 불교계의 일본측의 인식을 논한 연구이다. 이어서 고영섭 ( 동국 대학 교수 ) 이 「만해 한용운의 일본 인식 - 불교계에 있어 애국계몽운동의 사상적 단서 -」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여, 식민지 시대에 활약한 한용운의 애국 계몽 운동의 사상적 배경을 밝혔다.

점심 식사에 이어 미우라 세츠오 ( 三浦節夫 , IRCP 연구원 / 동양 대학 교수 ) 의 「일본 근대에 있어서 전통의 「발견」 —이노우에 엔료 ( 井上円了 ) 의 『불교활론서론』, 김호성 ( 동국 대학 교수 ) 의 「야나기 무네요시 ( 柳宗悦 ) 의 해석학에 있어서의 안목— 『나무아미타불』 을 중심으로—」, 다케무라 마키오 「니시다 기타로 ( 西田幾多郎 ) 의 선사상— 「역대응 ( 逆対応 )」 의 논리를 중심으로」, 강문선 ( 혜원스님 ) 「근대기의 한국 비구니의 수선 ( 修禪 ) 과 깨달음에 대한 일고찰」 등, 4 개의 발표가 이루어졌다.

이들 발표에서는 근대 불교에 있어서 이노우에 엔료가 이룩한 역할 ( 미우라 ) , 야나기 무네요시에 의한 법연 · 신란 · 일편의 창조적인 해석 ( 김호성 ) , 니시다 기타로의 「역대응」 과 「평상저 ( 平常底 )」 에 기반한 선 ( 禪 ) 이해 ( 다케무라 ) , 근대 한국 비구니의 선수행과 깨달음의 내실 ( 혜원 스님 ) 이 논하여졌다. 그 이후 모든 발표자에 의한 종합 토론이 이루어져 활발한 논의가 전개되었다.

마지막으로, 무라카미 카츠조 ( 村上勝三 , IRCP 연구원 및 센터장 ) 의 폐회사로 연구회를 마쳤다. 일본측과 한국측 쌍방이 동아시아라고 하는 넓은 틀에 서서 새로운 지견 ( 知見 ) 을 도출하려고 한 것이 이 연구회의 큰 성과였다.

### · 제 3 회 연구회

2015 년 7 월 11 일 동양 대학 백산 캠퍼스 8 호관 7 층 125 기념홀에서 제 3 회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본 연구회의 사회는 이와이 쇼고 (岩井昌悟, IRCP 연구원 / 동양 대학) 가 맡았고, 정상교 (동경 대학 대학원) 가 통역을 담당했다. 다케무라 마키오 (竹村牧男, IRCP 연구원 / 동양 대학 학장) 와 강문선 (혜원 스님, 동국 대학교 교수) 이 개회사를 하고 6 명의 발표자에 의해 연구 발표가 이루어졌다.

최초의 연구 발표는 사토 아쓰시 (佐藤厚, IRCP 객원연구원 / 전수대학 특임 교수) 에 의한 「조선 불교계의 해외 정보의 섭취—1910 년대를 중심으로—」 였다. 1912 년부터 13 년에 걸쳐 간행된 『조선불교월보』 에 수록된 5 개의 번역 문헌의 검토를 통해 근대 조선 불교계가 중국이나 일본의 문헌을 어떻게 섭취하였고 무엇을 얻으려고 했는가를 논하였다.

이어서 김광식 (동국 대학교 교수) 의 「한국 근대 불교 「대처육식」 의 이원적 노선—일본 불교 수용에 대한 찬반의 사례」 가 발표 되었다. 이 연구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 퍼진 승려의 육식 대처 문제에 대하여 조선 불교계의 반응을 찬반 양면에서 논한 것이다.

점심 식사 후의 연구 발표는 미우라 세츠오 (三浦節夫, IRCP 연구원 / 동양 대학 교수) 에 의한 「이노우에 엔료 (井上円了) 의 요괴학」 이다. 이 연구는 이노우에 엔료의 생애와 함께 요괴학의 내용과 그 의의를 소개하였다. 이어서 김호성 (동국 대학교 교수) 은 「구라타 하쿠조 (倉田百三) 의 신란 (親鸞) 이해—『법연 (法然) 과 신란 (親鸞) 의 신앙 (下)』 을 중심으로—」 를 발표 하였다.

간단한 휴식에 이어 다케무라 마키오는 「스즈키 다이세츠 (鈴木大拙) 와 니시다 기타로 (西田幾多郎)」 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 하였다. 이 연구는 니시다 기타로와 스즈키 다이세츠의 종교 철학을 개관하고 그 의의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강문선 (혜원 스님) 은 「근대 한국 선종의 방함록 (芳躑錄) 에 나타난 수행문화」 를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방함록이라고 하는 근대 한국 선종에 남겨진 기록으로 부터 당시 수행 문화의 양상을 논한 것이다.

연구 발표 후 종합 검토가 이루어졌는데 예정 시간을 초과할 만큼 열띤 토론이 오갔다. 마지막으로 무라카미 카츠조 (村上勝三, IRCP 연구원 및 센터장) 의 폐회사로 연구회는 막을 내렸다. 한일 연구자는 각각 다른 관점을 제공하면서 새로운 지견을 지향한 것이 이 연구회의 성과이다.

## · 제 4 회 연구회

2015 년 11 월 19 일 동국대학교 다향관 세미나실에서 제 4 회 연구회가 개최되었다. 연구회의 사회는 김호성 (동국대학교 교수) 등이 맡고, 박기열 (동국 대학교 강사) 등이 통역을 담당했다. 개회식에는 종호스님 (불교 대학원 · 불교 대학장) 의 개회 인사가 있었고 이어서 다케무라 마키오 (IRCP 연구원 / 동양 대학 학장), 한보광 (동국 대학교 총장) 에 의한 축사가 있었다. 이어서 6 명의 발표자에 의한 연구 발표가 있었다.

최초 발표는 다케무라 마키오의 「근대 일본 불교에 있어서 계율 부흥 운동의 2, 3 의 동향에 관하여」 이다. 이 연구는 일본 불교에 있어서 계율을 둘러싼 역사와 계율 부흥 운동을 개관한 후, 근대에 있어서 계율 부흥 운동의 예로서 샤쿠운쇼 (釈雲照) 율사와 샤쿠 죠우코 (釈定光) 를 들고, 그 역사적 의미를 밝혔다.

이어진 발표는 박인성 (동국대학교 교수) 의 「변행심소촉 (遍行心所觸) 에 대한 후카우라 세분 (深浦正文) 의 해석」 이다. 이 연구는 대승 불교의 유식 사상, 법상종의 중심 전적인 『성유식론』 중, 변행심소촉이라고 하는 단어의 해석을 들고, 일본의 근현대 불교학자인 후카우라 세분이 『유식론해설』 등에 있어 원문을 오독한 채로 해설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원전에 기반하여 바른 해석을 제시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발표가 이어졌다. 제 1 부의 발표는 2 명이였다. 최초는 미우라 세츠오 (IRCP 연구원 / 동양 대학 교수) 의 「이노우에 엔료 (井上円了) 와 기요자와 만시 (清沢滿之)—근대 일본의 불교자」 이다. 이 연구는 근대 불교의 중요 인물인 이노우에 엔료와 기요자와 만시를 들고, 양 학자의 활동을 개관한 후, 근대 불교사에 있어서 양 학자의 4 가지 공통점을 지적했다. 이어서 강문선

(혜원 스님, 동국 대학교 교수) 의 「1920-1940 년대 일본의 조선 불교 부흥 운동과 그 양상—나카무라 겐타로 (中村健太郎) 『조선 생활 50 년』 을 중심으로—」 였다. 이 연구는 식민지 시대에 조선 에서 활동한 나카무라 겐타로, 아베 미츠이에 (阿部充家), 고바야시 겐로쿠 (小林源六) 를 들고, 그들이 당시 조선 반도의 불교를 어떻게 부흥시키려고 했는가를 밝혔다.

휴식 후, 오후 제 2 부의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사토 아쓰시 (IRCP 객원 연구원 / 전수 대학 특임 교수) 에 의한 「『조선불교총서』 간행 계획 - 1920 년대 조선에 있어서 환상적인 프로젝트」 가 있었다. 이 연구는, 1920 년대 일본 식민치하의 조선에는 조선찬술 문헌만을 수록한 『조선불교총서』 의 간행 계획이 있었는데 그 배경으로 당시 일본에서 간행된 卍藏經에는 조선 반도에서 잃어버린 불서가 다수 수록되어있는 점, 일본에서 일본 찬술 문헌만을 모은 대일본불교전서가 간행된 점이 있다. 결과적으로 실현되지 않았지만, 이 계획의 경위에 관해서 중심 인물인 이능화, 정황진의 활동을 중심으로 논했다.

이은 발표는 고영섭 (동국 대학교 교수) 의 「뇌허 김동화의 불교 인식 - 우이 하쿠쥬 (宇井伯壽) 와 관련하여 -」 였다. 김동화 (호: 뇌허) 는 식민지 시대에 일본의 릿쇼 (立正) 대학에 유학한 승려로서 제 2 차 대전후 한국 불교학회의 중심이 됨과 함께 동국 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인물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김동화의 주저 『불교학 개론』 (1954 년 간행) 이 일본 현대의 대표적인 불교학자인 우이 하쿠쥬의 『불교법론 (仏教汎論)』 (1947, 48 년 간행) 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평가되었지만, 이에 대해 고영섭은, 그 영향은 아주 적었고 대부분 김동화의 독창적인 것이라고 논했다.

개인 발표 후 종합 토론이 이어졌고 사회는 박경준 (동국 대학교 교수) 이 담당하였다. 여기서는 사회자에 의한 각 발표자에의 질문, 회장 (會場) 으로부터의 질문, 발표자 상호 질의 응답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한 중호 스님 (불교대학 대학원 · 불교 대학장) 은 이번 연구회를 되돌아봄과 함께, 2 년간의 공동 연구가 이번 연구회로 종료됨을 아쉬워하며 다시 이런 연구가 열리게 됨을 기대한다는 말로 폐회사를 끝맺었다.

## · 마치며

2014 년 11 월부터 4 회에 걸쳐 행하여진 공동 연구회는 당초 합의대로 동국 대학교에서 2 회, 동양 대학교에서 2 회 개최 되었고, 합계 24 개의 연구가 발표 되었다. 내용을 크게 분류해 보면, ‘일본의 근대 불교’, ‘한국의 근대 불교’, ‘근대에 있어서 일본과 한국의 교류’ 가 된다. 이들 모두 「일본과 한국의 근대 불교의 변천」 이라고 하는 대회의 주제를 생각할 때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는 주제이고, 앞으로 이 분야를 연구함에 있어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나아가, 연구회를 통해서 배가된 양 대학간의 교류는 틀림없이 장래 양 대학의 알찬 교류로 이어질것을 확신한다.